

해남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앞두고 신규 발굴 노력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받아 10월부터 지급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해남군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구를 발굴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쓰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부터 이달 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읍면별 찾아가는 현

장접수를 통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기간 총 907가구가 새롭게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며 신속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또 임차거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20일 첫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에 대해서는 연간수선계획에 맞춰 보수비용 위변 수선주기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나 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 탈락

했거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쌀 12t 말레이시아 첫 수출

농협전남본부·완도농협 기념식

완도쌀(사진)이 할랄(JAKIM)인증으로 말레이시아 수출길을 열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완도농협은 지난 10일 완도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완도쌀의 말레이시아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 박서홍 농협경제본부부장, 김진갑 농협완도군지부장, 정남선 조합장 및 완도관내 농협조합장, 황규우 완도군쌀전업농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된 완도쌀은 지난 5월1일 할랄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전남도와 완도군, NH무역이 함께 노력한 결과 말레이시아 첫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완도쌀은 이날 부산항을 통해 선적이 됐으며 품종은 미품으로 물량은 총 12t(2800만원)이다.

정남선 완도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출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현대화된 RPC 시설에서 가공된 완도쌀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할랄인증은 심사절차가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완도농협에서 완도군과 잘 협력해 인증획득을 잘 해주셨다”며 “지속적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재 윤두서 문화제 연다 15일 현산면 고백

해남군은 우리나라 미술사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윤두서자화상’(사진·국보 240호)의 주인공,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가 오는 15일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현산면 백포마을 공재 고백에서 열리는 행사는 공재에게 차와 꽃 등을 올리는 다례제와 음악회 ‘공재자화상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자화상의 밤은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 등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무대와 함께 지역민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미술아 놀자’ 체험행사를 비롯해, 다식 나누기, 청소년 자화상 공모전 시상식, 공재주막,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해남 모실장 등이 열린다.

앞서 공재문화제의 일환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자화상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고산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오는 6일에는 서울대 정기준 교수를 강사로 초청, 학술강연을 개최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가 보건소에서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과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출생아건강보험’ 큰 호응

신생아 10세까지 건강보험 전액 지원 등...현재 378명 혜택

진도군이 지원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출산장려담당 조직을 갖추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액 군비로 출산가정에 0세부터 10세까지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사고·질병 발생시 보장을 받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며 질병과 상해로 입원시 보험료가 지급되고 가입절차 상의 모든 특약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진도군에서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보장하며,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계약 만료 후 만10세가 되면 100만원 상당의 만기환급금 수령으

로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생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한 주민은 “아이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비 걱정에 막막했지만 출생아 건강 보험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만기 도래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 환급금을 출생아 부모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보험료 지원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원금을 자녀 교육비로 이용하는 등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을 4억 5000만원(378명)을 환급했으며 신생아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을 차등 분할해 지원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하반기 장학생 150명 선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150명이며, 모두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장학생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자녀로서 학업성적 장학생은 중·고·대학생이 신청대상이다.

특기 장학생은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배사랑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장학회 사무국(061-540-3243)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완도 상왕산 열레지 군락지 조성 10월 완료

군, 6.5ha일대 잡관목 제거 등 관광자원화

완도군은 상왕산을 다채로운 산림으로 바꾸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열레지(사진) 군락지 조성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열레지 군락지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난대림과 연계한 산림관광자원 실태 조사 중 상왕산 정상(상왕봉)을 중심으로 6.5ha에 걸쳐 130만본 이상의 열레지 군락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열레지는 숲속의 요정 또는 바람난 여인으로 불리며 깊은 산속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백합과 속근성의 여러해살이 풀로 3월~4월 중 자주색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여 인공의 세월에 견뎌야 한다.

특히 개화하고 꽃은 약 2주간 감상할 수 있으며 산림정리를 통해 햇빛을 충분히 받은 지역과 잡관목에 덮여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화와 번식의 정도가 차이 난다.

군은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해 열레지의 생육을 저해하는 조릿대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산림정리 사업을 실시해 생장 촉진은 물론 꽃의 개화를 유도해 내년 봄에는 상왕산 정상에 봄의 전령사인 열레지로 자주빛 향연을 연출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 봄 열레지의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후 손쉽게 야생화를 관찰하며 동시에 군락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국 최대의 열레지 군락지를 조성하고 이를 산림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